

바지락

2023년 4월호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2면 주 노동시간 69시간까지?
- 4면 강원도 유일 금속노조 지회, 신일정밀지회
- 6면 '민노총' 아니예요, '민주노총'이에요
- 7면 QR코드 활용 꿀팁
- 8면 전국 노동자 체감경기·임금실태 조사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주 노동시간 69시간까지?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문제점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를(주 12시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도록(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등)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 재	개편안 따른 추가 상황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 64시간 상한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

정부안대로 법을 바꾸면 사용자는 1, 2주에 몰아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하루 11.5시간×6일)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특근까지 하면 무려 주 80.5시간도 가능합니다.

단기간 ‘몰아치기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시) 9:00 출근 ~ 22:00 퇴근 하루 11.5시간 근무 (법정 휴게시간 제외)						유급 휴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가 이렇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 대표자, 없으면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노동자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는 회사 개입 없이 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만 유효합니다.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표와 합의한 내용은 무효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② 개별 노동자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도 개인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자와 회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절차대로 선출해도 감시할 제도가 없으면 회사 뜻대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 동의 조항이 있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현실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의 일방 지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와 동등하게 교섭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원도의 힘! 강원도 유일 금속노조 지

강릉시에 있는 신일정밀은 대형 베어링을 만듭니다. 제조업 공장이 많지 않은 강원도에서 신일정밀에 강원도 내 유일한 금속노조 지회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사주 일가의 횡포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회사와 한판 싸움을 위해 2020년 8월 금속노조로 전환, 가입했습니다.

회사는 악명 높은 노조파괴 범죄집단 창조컨설팅 관련 노무사를 불러들여 금속노조에 맞섰습니다. 신일정밀의 모든 것을 가진 사주 일가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회의의 자긍심, 신일정밀지회

결국, 신일정밀지회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전면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이 무엇인지 몰랐던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2021년 5월 20일까지 213일 동안 싸웠습니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용석일 지회장은 “지회가 213일 동안 파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금속노조”라고 말합니다.

금속노조는 전면파업 3개월이 지나면 장기투쟁 대책기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만큼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80여 명의 신일정밀 조합원 뒤에 19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회는 지난해 6월 30일 새로운 경영진과 임금인상·단체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신일정밀지회는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일정밀을 넘어 강원도의 다른 공장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쉽게 가입하도록 알리고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석일 지회장은 “이 좋은 걸 우리만 할 수는 없지요”라며 웃었습니다.

‘민노총’ 아니에요, **민주노총** 이예요

보수언론과 정치인은 한사코 민노총이라 부를까?

이름은 남이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배웁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은 1995년 조합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규약 첫 줄은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약칭은 민주노총이다’입니다.

글로 먹고살면서 우리말 문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극우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입니다. 이들은 한사코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언론이 똑바로 부르고, 노동부조차 ‘민주노총’이라 쓰고 있어도 귀를 막고 “너네는 민노총”이라고 악을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은 민주노총의 ‘민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는 조합원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회계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라고 부르면 왠지 지는 기분이 들고, 민주노조가 사라지길 바라며 기어이 ‘주’자를 떼고 부릅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은 일터와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민주노총의 이름을 지우면 사용자와 보수정당만 좋아합니다. 민주노총의 이름 네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부릅시다. 우리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함께 지킵시다.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카메라 앱을 실행해 아래 QR코드를 비추면 해당 사이트 링크 알림이 뜹니다. 알림을 눌러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함께 알아보시다.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만으로 아쉬웠다면 <바지락> 지난 호도 살펴보세요. 공단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실전 노동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때와장소를 #가리지않고 #만날수있는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본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PDF 파일로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노동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 이다처럼 속이 뽕 뚫리는 영상 Q&A, 퇴직금, 연차휴가, 산재보상에 관해 궁금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터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 홈페이지 주소: 공단노조.com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카톡 채널 추가해 무료 노동상담 받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직장갑질 #해고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불안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길어지는 경제위기 속 치솟는 물가와 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3~4월 금속노조는 전국 산업단지,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노동자 체감경기·임금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금속노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5~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최저임금에 담도록 앞장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2023년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 설문 조사



오른쪽 QR코드로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께

바나나우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일,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최저임금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  1811-9509